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제3103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디바 박정현 일일 강사로

Entertainment p/21



사극에 도전하는 박신혜



'통합진보당 해산' 최종 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은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건"이라며 "소수정당 탄압"이라고 방어했다. /연합뉴스

부자들의 뭉칫돈 은밀히 이동 중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 D-3… 묘안 찾아 갈아타기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일선 창구에선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한편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돼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금융거래로 앞서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손질했다.

실제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미술품, 현금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 예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줄어든 4조2000여억원과 5조2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예금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금 현물이나 5만원 등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도 늘고 있다.

차명거래 적발땐 징역형
고액예금자 은행서 돈 빼
보험들고 금·미술품 사고
보관용 금고 구입도 급증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kg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kg으로 약 2.2배가 됐다.

kg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kg에서 지난달 132kg까지 뛰어올랐다.

금융권의 이 같은 흐름은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었지만 실명거래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지워 처벌이 부과되는 등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간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키로 했다.

한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비대칭성"이라며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추측된 의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선의의 차명거래 역시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정보통신 1위 덴마크에 뺏겼다

국외 사이트 이용 저조 탓

한국이 4년 동안 지켜왔던 세계 정보통신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국외 사이트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13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ICT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DI는 8.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66개국 중 덴마크(8.86)에 이은 2위다. 스웨덴이 8.67로 3위에 올랐고 아이슬란드(8.64), 영국(8.50), 노르웨이(8.39), 네덜란드(8.38), 핀란드(8.31)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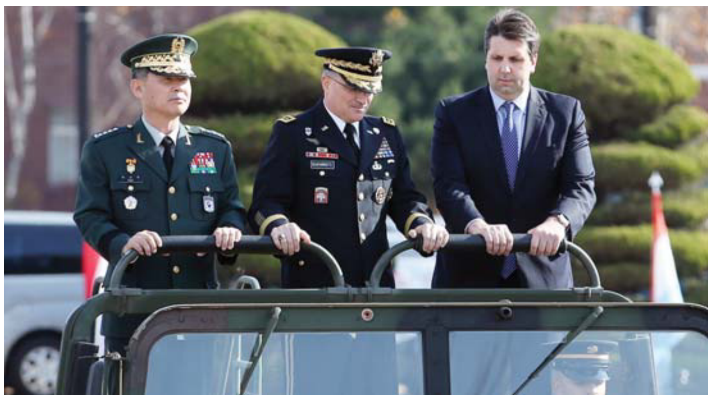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9위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일본은 11위, 중국은 86위다.

미국은 14위를 차지했고 꼴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다. 북한도 ITU 회원국이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IDI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접근·이용, ICT 활용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한국은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해 순위가 2위로 떨어진 것은 국제 인터넷 대역폭 평가 지표에서 덴마크에 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덴마크의 경우 한국보다 국제 인터넷 이용비용이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kmlee@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연합사 방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함께 열병 도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

여 2000억 vs 야 5233억… 증액 규모는 이견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우회 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된 뒤 14일만에 재개됐으나 또다시 정회에 들어가며 파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으며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새누리당 김재원(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팬택, 경쟁사 단말기 가격 영향 줄까



기자 수첩

정 혜 인 <경제산업부 기자>

팬택이 '저가전략'으로 단말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이미 판매 중이던 '베가 아이언2'의 출고가를 인하하더니 프리미엄 스마트폰 '베가 팝업 노트'를 35만2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베가 팝업 노트는 출시 당일 오전 반나절 만에 재고량 3만대가 모두 동나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팬택의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영향 탓에 얼어붙었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양 면에서 다른 제조사의 제품보다 모자랄 것 없는 제품을 팬택이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타사 역시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제조사들 역시 출고가를 조금씩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인하 대상에는 프리미엄 모델도 포함돼 있지만 이 제품들은 LTE-A를 지원하지 않는 이전 모델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은 여전히 고가인 셈이다.

물론 팬택은 경쟁사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던 만큼 영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필요성이 있었다. 때문에 다소 무리한 가격 결정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팬택을 선택한 소비자의 마음이다.

특수한 상황의 팬택과 똑같은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팬택이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은 확실하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10만원 가량 출고가를 인하한 타사의 제품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팬택의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팬택의 출고가 인하 전략이 경쟁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단두대 올려야”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공급 모델을 발굴해달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박인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실시

●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 학위 취득, 소득 성실신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다음주 '에볼라 본대' 파견 일정 결정

●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선발대의 현지 조사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께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일정 등 본대 파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구체적인 현지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일정 및 방식으로 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내주쯤 관련 회의를 열어 본대 파견 일정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씨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그동안 중앙선관위에서 홍보과장, 정당과장,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선 출마 1~2년 후 논의해도 충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의원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경주 토종닭 AI 양성

3㎞내 200마리 살처분… 야생조류서도 바이러스 검출

경북 경주의 한 농장에서 폐사한 토종닭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야생조류에서도 AI가 검출됐다.

경북도는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경주시 산내면의 토종닭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H5N8형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에는 닭 130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122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2마리를 시작으로 22일 60마리, 23일 60마리가 죽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닭을 매몰처분하고 반경 3㎞ 이내 농장 3곳의 닭 200여마리도 예방차원에서 매몰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닭 농장이 없으며 반경 10㎞ 이내에는 26가구에서 3만900여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지 주변의 농장과 관리지역인 반경 10㎞ 이내 농장을 방문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백숙 판매식당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동 판매상으로부터 지난 2월에 30마리, 9월에 10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서는 지난 3월 천북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천에서 포획한 철새에서 지난 13일 H5N3형 저병원성 AI를 검출했고 4~17일 검사에서 전북과 충남, 충북, 경기 등에서 H5형 항체를 잇따라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과 차단방역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예찰·소독 강화와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방역당국이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가능성이 있는 닭에 대한 매몰작업을 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뽀로로도 택시로 만나요 2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CNG충전소 앞에서 열린 '뽀로로 택시 운행 시승식 행사'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뽀로로가 그려진 택시를 만져보고 있다. /뉴시스

'음란 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상대방에게 성기 등을 노출해 쾌감을 즐기는 바바리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정우기자 cyclone@

<고가 보약>

싸구려 환약을 '공진단' 속여 13배 폭리

겉보기만 멀쩡한 환약을 고가 보약인 공진단(供辰丹)과 효능이 같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원가의 1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판매업체 대표 권모(42)씨와 직원 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식품제조업자로부터 '공심환' 1400상자를 상자당 3만원(60환)에 공급받은 뒤 상자당 39만8000원에 되팔아 최근까지 3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신문 등에 공심환이 6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간기능개선·만성피로회복·정력증진·항암효과 등이 있다는 광고를 냈고, 유명 제약회사 연구실과 연구원 사진 등을 도용해 붙이기도 했다. 이 환약은 구기자와 상황버섯·하수오 등 한약재를 가루로 만든 뒤 엿기름 등으로 굳힌 것이다.

/유주영기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주영기자

해인사에 주술 기도문 낙서한 여성 검거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는 이 사건 범인으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썼다.

김씨는 이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유주영기자

안보공단·가스公 '건설재해예방 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4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와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앞줄 왼쪽 다섯번째) 이사장이 24일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과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중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인증 받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안보공단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기술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현장 재해예방 활동을 돕는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공 발주기관이 체계적인 안전보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구살리기 바자회

metro Russia

쓰지 않는 물건 교환



Вещам дал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물물교환 바자회 '다르마르카'가 열렸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이번 바자회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바자회에 참여한 다찌야나는 "스캐너와 무선 마우스, 오래된 레코드판을 가지고 나왔다"며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는 조금 춥지만 이웃도 만날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또다른 시민 마리야는 "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며 "바자회에 나온 꼬마들이 몰려와 금새 장난감을 가져갔다. 아이들에게 나눠 쓰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다르마르카는 훌륭한 학습의 장"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인 예카테리나 블라소바는 "많은 시민이 다르마르카에 참여했다"며 "문학 서적, 이국적인 장식품, 어린이 만화책,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블라소바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끼려는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다르마르카를 열어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상어 수족관서 프러포즈

metro France



한 프랑스 남성이 상어 수족관에 들어가 프러포즈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르노'(36)는 최근 리옹 아쿠아리움의 상어 수족관 속에서 잠수부와 함께 '신디 나와 결혼해줄래?'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아르노는 "다른 방법으로 청혼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고 싶었다. 어쩌다 보니 아쿠아리움을 장소로 택하게 됐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고 두살배기 아들도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일 신디의 컨디션이 좋아 가족 외출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르노는 "프러포즈를 준비하는 데 일주일정도 소요됐다. 아쿠아리움 직원이 흔쾌히 협조해 줘 감사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을 텐데 열정적으로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디에 손을 내밀었다. 매우 놀란 신디는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곧장 그의 청혼을 승낙했다.

한편 두 사람은 올 겨울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피에르-알렉상드르 브벙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실업률 감소… 취업 시장 '활기'

metro Brazil



브라질 고용 지표에 파란 불이 켜졌다.

브라질 지리 통계청은 지난달 브라질 6개 대도시(벨루 오리존치·포르투 알레그리·헤시피·히우 지 자네이루·살바도르·상 파울루)지역의 실업률이 4.7%에 머물러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2년 이래 10월마다 기록된 실업률 중 가장 낮으며 올해 중에서도 최저치다.

취업 인구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0.8%가 상승, 2327만 8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실업 인구는 3.5% 하락해 114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10월 평균 소득의 경우 2.3% 상승, 2122헤알(91만 6000원)을 기록했다.

아드리아나 베링구이 지리 통계청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실업률 변화 추이는 고용 증가, 구직 활동 감소 및 노동 시장에 대한 압력 감소 영향이 크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취업률은 보기 드문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흑인 사살 백인 경관 불기소

美 퍼거슨市 또 발칵… 시위대 방화 등 소요 확산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8월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대배심의 결정이 나오자 퍼거슨 시에서는 분노한 군중이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졌다.

로버트 매컬러크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브라운(당시 18세)을 총으로 쏴 죽인 대런 윌슨(28) 경관을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백인 9명, 흑인 3명 등 12명(남성 7명·여성 5명)으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 찬성 의견을 밝힌 이가 기준인 9명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식을 접한 브라운의 유족은 "크게 실망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3개월간 대배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목격자 증언과 부검의 소견,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등을 살피며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2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시민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브라운측 유족과 시위대는 윌슨 경관이 인종 차별적인 태도로 죄없는 시민을 사살했다며 기소를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브라운과 윌슨 경관이 순찰차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며 윌슨 경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브라운은 양손을 머리 위로 든 채 6발 이상을 맞고 숨졌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위대의 분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퍼거슨 시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의 창문을 부수고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은 퍼거슨 경찰서 근처에 모여든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쐈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대배심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소요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이 주요 건물을 지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자유의 메달' 받는 메릴 스트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에게 '자유의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자유의 메달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문화 분야에서 뚜렷한 공헌을 남긴 미국인에게 수여된다. /AP 연합뉴스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사임

오바마와 IS 공습 대립각… 사실상 경질

척 헤이글(68·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사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4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한 뒤 처음으로 단행한 내각 교체로 관심이 쏠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척은 모범적인 국방장관으로서 나에게 진솔한 조언과 충고를 해줬다"며 "지난달 국방장관으로서 직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이 지명돼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글 장관은 네브래스카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었다. 지난해 오바마 2기 내각에 합류했다. 2년여 재임 기간 동안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미군 재편,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총지휘했다.

그러나 IS를 상대로 한 공습 작전 등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에는 그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전략에 의구심을 표하며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내부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헤이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전했다.

헤이글 장관의 후임으로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선미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직무와 연관된 스펙만 준비하라

Q 스펙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 학벌·학점·토익·자격증·수상경력·어학연수·봉사활동·인턴경력 등 취업 8대 스펙이 필수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갖추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의 압박감이 큽니다.

하지만 8대 스펙을 모두 갖춘 사람만 취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8대 스펙이 다 갖춰지면 대기업에 당연히 취업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직무와 회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와 연관된 스펙을 갖춰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널리스트가 발표하는 기업정보와 기사, 기업정보 공개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 기업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스펙에 대한 우선 순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점, 영어, 동아리나 공모전, 인턴 등의 순서로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점의 경우, 재학시절의 성실성과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는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경계열의 학생들인 경우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과 같은 원론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하고, 공대생인 경우 C언어, 물리, 화학 등 전공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과목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8대 스펙을 모두 다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색 없이 모두 평균 이하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자신 만의 특장 점을 바탕으로 직무와 연관된 스펙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축구협회 채용상담 부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스포츠산업 잡 페스티벌'에서 대한축구협회 부스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편견 깨고 싶어 도전"

르포

지스타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현장 속으로

하루동안 1500명의 구직자 몰려
20개 업체 최대 100명 채용 예정



"게임 개발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지만 제가 그 편견을 깨고 싶어요."

국제게임기업전시회 '지스타 2014'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21일 제1전시장 2층에서 게임기업 채용박람회가 개최됐다. 게임 신작을 만끽하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다른 행사장과 달리 채용박람회는 차세대 게임 유망주를 꿈꾸는 젊은이들로 또 다른 활기를 보였다. 각종 게임 규제 정책과 실적 부진으로 게임 업계가 침체된 상태지만 미래 게임 산업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동의대학교 게임공학과 김진형(23) 씨는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꿈이 더욱 커졌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싶다"며 "게임 업계 취업은 자격증 취득보다 실제 업무 능력이 중요했다. 스펙보다 실력이 뛰어난 게임 개발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5회째로 지스타 사무국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함께 진행하는 게임기업 채용박람회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 20곳이 참여했다. 엔씨소프트·게임빌·컴투스 등 참가 기업 면모도 화려하다. 지스타 기간에 단 하루동안 열리는 부대 행사이지만 올해 채용 박람회에는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지난해 지스타 채용 박람회 참가 인원 115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동의대학교 게임공학과 김동우(23) 씨는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면서 게임 업계 취업을 위해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2D와 3D 중 어떤 분야를 주 종목으로 삼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인사 담당자가 게임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 것을 만들려면 몇주가 걸리겠느냐'란 질문을 하던데 실무 경험을 쌓아야 겠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채용박람회 각종 부대 시설도 눈길을 끌었다.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지문 인적성 검사, 이미지 캐리커처, 취업 타로 이벤트는 젊은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끌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비치된 문서 지원실도 있어 현장에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출력하게 도왔다. 취업 소망 쪽지를 남긴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행사를 진행한 박용선 인크루트 대외산업본부 대리는 "게임기업 채용박람회는 지스타와 함께 열려 일반 잡페어와 달리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면서 "채용박람회 주제가 게임 업계에 한정됐는데도 많은 구직자들이 참가해 인상적이다. 박람회 참가자들 대상으로 최대 100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 채용박람회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진행자가 폐회를 알렸지만 부스 앞에서 취업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 수는 줄지 않았다. 문서 지원실 프린터에서는 끊임없이 이력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게임 업계 취업 희망자들의 열기는 B2C 행사장보다 뜨거웠다.

/부산=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즐거운 트레킹을 원한다면?

트레킹학교, 12월 말까지 주말 '1일 트레킹교육' 실시



트레킹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주는 뜻 깊은 여행이다.

일상에서 바쁘기만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레저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본인 능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고 주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걸으면 심신 치유는 물론 새로운 생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트레킹 정보는 한정적이며 트레킹을 하면서 꼭 필요한 안전교육 등도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안전하고 올바른 트레킹을 위한 신명나는 교육 프로그램인 '1일 트레킹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산에 관한 자료나 트레킹 코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강사들은 호흡·보행법은 물론 트레킹하는 지역의 문화·자연적인 특성까지 소개한다. 게다가 초보자들을 위한 계획과 준비 등 트레킹 기초에 관한 이론과 실기도 자세히 알려준다.

특히 부상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이지만 관절과 근육 등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방심하면 쉽게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레킹학교는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도 빼놓지 않는다.

또 트레킹학교는 현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매 주말에 이뤄지며 강의는 등산 관련 자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 강사팀이 맡는다. 장소는 북한산, 도봉산 등 서울 10개소와 지방 5개소 등이다. 문의: 02)2272-2744·www.sportal-edu.or.kr /황재용기자 hsoul38@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80.21 (+1.67)	코스닥	546.34 (+4.41)
금리(국고채 3년)	2.11 (−0.01)	환율(원·달러)	1110.90 (−2.60)

글로벌 IT기업 인수합병 바람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생태계 구축 본격화

issue&view
IT업체 M&A 열풍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다.

빠르게 급변하는 IT기업의 생태계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IT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업체인 '스마트싱스'와 이어 미국 공조제품 유통회사인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해 북미에서 기업간거래(B2B)와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어 9월에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인 '프린터온'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이하 써모피셔)과 체외 진단 분야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스코틀랜드 국영 의료 시범 사업에서 빠른 응급조치 실현 등으로 성능을 입증 받은 'IB10'을 포함한 급성 심장질환, 신진대사, 염증 질환 등을 진단하는 다양한 현장 진단용 체외 진단 기기를 써모피셔에게 공급한다. 써모피셔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체외 진단용 시약, 기기, 실험실 설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최근 로봇, 무인항공기 등 이종산업 인수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홈 기술업체 네스트랩과 네트워크 기술업체 알펜탈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관리되는 사물인터넷(IoT)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올해 무인항공기와 VR업체 인수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 합류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전 세계적인 모바일메시징서비스 와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어서 가상현실 기술업체인 오큘러스VR을 20억 달러의 큰 금액으로 인수하는 등 파격적인 M&A를 단행했다.

애플은 최근 모바일헬스 제조업체와 음원업체를 인수하는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또 중국 3대 인터넷 사업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100조원이 넘는 자금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경쟁력 확보전략을 중심으로 웹포털,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의 웹 기반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M&A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홈보이 NEW'
25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IOT체험관에서 모델들이 홈보이 신규 스피커 스테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수도권 전세가 고공행진

수도권에서 2년 전 아파트 전세를 얻은 세입자가 지금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400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총 354만2124가구의 평균 전세가는 2억3212만원으로 2년 전 1억9172만원보다 4040만원 올랐다.

서울이 2012년 2억7115만원에서 현재 3억2619만원으로 5504만원 상승했고, 경기가 3332만원(1억5949만→1억9281만원), 인천은 3187만원(1억1420만→1억4607만원) 뛰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평균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2년 사이 4억6041만원에서 5억3092만원으로 7051만원이나 올랐다.

/박선옥기자 pso9820@



포근한 겨울 예보에 우유 재고량 증가 우려 올해 겨울 날씨가 포근할 것이라는 예보에 25일 우유업계가 재고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부진과 따뜻한 겨울날씨로 젖소 집유량이 늘어나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량 감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미래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개선

표준결제창 제공 의무화…결제인증방식도 강화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지속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5일 미래부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랐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정지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이용한도액 증액 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액결제 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이 사용됐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에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다음 달 중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한편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가계 빚 1060조

석달 새 22조 급증

가계 빚의 증가 속도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 등으로 빨라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1038조3000억원)보다 22조원(2.1%) 늘어난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적인 통계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괄한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폭 확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중 예금은행 대출은 12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1조9000억원에 달했다.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2분기 증가폭(6조4000억원)보다는 둔화한 수준이다.

이밖에 보험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2분기 9000억원에서 3분기에는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주최 세계최대 무료신문 metro Worldwide Daily Newspaper ·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롯데건설 · SPC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KDB대우증권 · 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 JEONJU PAPER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LIG손보 인수 위해 당국 적극 설명"

윤종규 KB회장 "中企 금융·자산관리 분야 집중 육성"… 취임 기자간담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25일 "재임기간 내 KB의 리딩뱅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KB의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국민은행장을 겸임해 임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금융과 자산관리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을 가진 소매금융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가계대출 총액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금융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상품 판매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부를 늘려줄 수 있는 자산관리(WM) 분야와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업투자금융(CIB), 유가증권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중점 과제인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는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KB가 LIG손보를 인수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 절차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KB금융은 한달새 30억원의 지연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부 사외이사의 자진사퇴가 있었지만, KB금융의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B지주가 LIG손보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췄느냐가 승인심사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며 "KB지주가 만들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KB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내년 3월 주주총회 직전에야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내년 주총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인사와 관련, "인사 청탁을 하지 말도록 이미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2명에게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샷 인사'처럼 최대한 단기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생보협회장에 이수창씨 내정



이수창(사진) 전 삼성생명 사장이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 퇴임한 배찬병 회장 이후 10년 만에 민간 출신 생보협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5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차기 협회장 인선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 전 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수창 전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단일후보로 추천할지 복수후보로 추천할지에 대해 2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 신은철 전 부회장은 전날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사원총회에서 협회 소속 전체 23개 회원사가 이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이 중 12개사가 참석하고 찬성표가 과반 이상을 획득하면 이 후보는 신임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된다.

이 후보는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지난 2001년 삼성화재 사장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생명을 이끌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기업 품질혁신 지원 MOU IBK기업은행은 25일 한국표준협회와 '기업 품질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혁신과 품질경영체제(ISO9001),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김영규(오른쪽) 기업은행 기업고객본부장과 오재원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제공



하이투자증권,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6일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자산운용사 1~9월 순익 2710억…16%↑

58곳 흑자 28곳 적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2700억원으로 1년새 1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기간 자산운용사 86곳의 순이익은 271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2343억원)보다 367억원(15.7%)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수수료 수익과 증권투자 이익이 각각 283억원, 126억원 늘었고 판관비는 176억원 감소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는 심화됐다.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의 순익은 지난해보다 493억원(31%) 늘어 전체 순이익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형사들의 순익은 KTB자산운용의 소송패소액(486억원) 반영 등으로 126억원(16.7%) 줄어들었다.

전체 86개사 가운데 58곳이 흑자를 냈고 28곳은 적자를 봤다.

순익1~5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558억원), KB자산운용(383억원), 삼성자산운용(304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228억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222억원)이었다.

이어 신영자산운용(150억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121억원), 맥쿼리자산운용(119억원), 트러스톤자산운용(103억원) 등 의순이었다.

자산운용사의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0%로 전년 같은기간(9.0%)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지난 9월 말 기준 668억원으로 1년전 626조원보다 42조원(6.7%) 늘었다.

특히 사모펀드(25조원)와 투자일임(15조원)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의 증가폭이 컸다.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의 운용자산은 398조원으로 1년새 9조원 증가했다.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은 33조원 늘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 수는 4751명으로 이 기간 91명 늘었다.

/김현정기자 hjkim1@

내년 증시 '금리·배당'이 변수

美 연준 인상…국내 기업 실적 18% 하향조정 전망

증권가에서는 내년 국내 증시의 향방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기업 실적 개선, 배당 확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난해 5월과 올해 9~10월에 걸쳐 증시는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우려로 인한 변동성을 수차례 맞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가 차츰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신호를 보인다는 점도 '내년 금리 인상설'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유럽과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양적완화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미국이 거둬들이는 유동성을 상쇄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나온다.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내 수출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엔화 흐름이 맞물렸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으로 엔화가 시끌벅적하지만 향후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달렸다"며 "인상 속도가 빠르면 엔화는 추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느긋하게 하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국내 증시의 또 다른 변수는 기업 실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 2012년부터 '어닝 쇼크' 수준을 거듭하며 증시 부진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증시의 대장주이자 대표 수출주인 기업들의 실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한층 키웠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15% 줄어들고 내년에 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망 역시 밝지는 않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기업 실적 전망치는 총 83조1000억원으로 컨센서스 추정치에 비해 18% 하향 조정됐다.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경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 실적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한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배당 확대 유도정책은 내년에도 투자심리를 되살릴 재료가 될 전망이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 시장의 배당수익률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진다면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목해야 할 배당주로 ▲대주주 지분이 높은 중소규모 지주회사 ▲연기금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기금이 배당 정책 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동부증권, ELB·ELS 4종 판매 동부증권은 26일부터 28일까지 최고 연 3.3%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7.56%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보장 하이파이브 형태 ELB 1종과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 ELS 2종, 원금비보장 월지급식 스텝다운 형태의 ELS 1종으로 구성됐다. /동부증권 제공

10월 체크카드 역대 최고 긁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호조 기대감에 소비자들이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액으로 자주 결제하는 '소액다건' 패턴 속에서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전체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10월 카드승인금액은 49조2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200억원(7.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증가율인 5.1%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39조24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했으며,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8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7.2% 커졌다.

소비회복세 영향으로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 모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카드승인건수는 모두 10억900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4.2% 많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3억9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카드 승인건수 3분의 1을 상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올 10월 체크카드 승인건수 비중은 36.1%로 이는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전체 카드승인금액에서 20.0%를 차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체크카드 활성화와 카드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카드 결제 패턴은 소액다건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금액 소액화가 지속되면서 10월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떨어진 4만5175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5만6581원으로 나왔고 체크카드는 2만4983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5%, 5.8%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과 인터넷상거래, 대형할인점 등 상위 10대 업종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미용관련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15.7%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가전제품(22.3%), 주방용구(10.9%), 주방용식기(16.4%)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윤달 전 마지막 혼수수요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완화가 가을철 이사수요와 겹친데 따른 것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알리안츠 암보험, 한 달만에 1만건 돌파

2년마다 다른암까지 보장

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1일 출시한 '(무)알리안츠계속받는 암보험(갱신형)'의 판매량이 지난 24일 기준 1만건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발병으로 진단급여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2년마다 같은 암은 물론 다른 암까지 보장하고 만기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2년마다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다시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보험기간 만기 시 보험가입금액의 10%(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가입 시 150만원)를 돌려줘 건강관리자금 또는 갱신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에 10년 만기 전기납의 경우 30세 여성의 월 보험료는 3만1935원이며, 같은 나이의 남성은 2만7240원이다.

은재경 알리안츠생명 상품계리실장은 "앞으로 계속 받는 형태의 암보험이 업계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보다 고객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연금과 보장이 강한 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하나은행·외환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0%(10년)~3.45%(3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므로 장래 금리변동이 걱정되거나 현재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우리경제 최대 위협 '제조업 쇠퇴'

전경련 "내년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제조업·수출의 쇠퇴'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는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장 큰 대외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18.4%)이 뒤를 이었다.

대내 변수의 경우 '성장 주역(제조업, 대기업, 수출)의 쇠퇴'(47.4%)와 '수요부족과 내수위축 장기화'(39.5%)가 큰 위협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줄 경기순환 형태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U자형' 성장곡선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도 'L자형'이나 'W자형 더블 딥 상황'이라고 예측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V자형이나 J자형 등 과거 우리 경제가 위기 직후 보여주었던 탄력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핵심 키워드로 응답자의 44.7%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꼽았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박성훈기자 zen@



디지털 예쁜 엽서전 눈길 삼성전자가 25일 서울 삼청동에서 개최한 '삼성 갤럭시 노트4와 MBC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展' 전시회에 관람 온 시민들이 수상작들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4일까지 열리며 관람시각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까지다. /손진영기자 son@



손 대신 눈동자로 조작

삼성전자 안구마우스 발표

삼성전자가 눈동자 움직임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안구마우스 '아이캔 플러스(EYECAN+)'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사옥 투모로우 솔루션 랩에서 안구마우스의 차세대 버전인 아이캔 플러스 시연 행사를 열었다. 안구마우스는 컴퓨터의 마우스 조작을 손 대신 눈동자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고, 특정 아이콘, 폴더, 링크에 포인터를 올린 후 눈을 깜빡이거나 1초 동안 바라보면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다.

안구마우스를 이용하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모니터 화면에 글을 쓰고, 컴퓨터를 제어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안구마우스는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아이캔 플러스는 5만원 이내의 재료비로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캔 플러스가 기존 아이캔에 비해 안구 인식의 정확도를 높였다. 단축키·클릭 모드를 적용하는 등 사용환경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캔 플러스는 모니터에 연결하는 박스 형태로 만들어 기존 안구 인식장치가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고, 또 아이캔 플러스를 모니터와 연결한 뒤 사용자의 눈에 맞게 한 번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설정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캔 플러스 개발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신형진씨를 비롯한 실제 제품 수요자들이 자문에 나서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부터 아이캔 플러스를 개인·사회단체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아이캔 플러스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외부에 개방해 사회적기업과 일반 벤처기업들이 안구마우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술기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시정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 상무는 "'EYECAN+'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더해 세계적인 제품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이처럼 임직원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중국·인도 '글로벌 물류' 중심

아시아 고성장 전망…북미·유럽 정체

글로벌 물류시장의 중심이 미주·유럽에서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한 아시아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 최대 경영전략 컨설팅사인 롤랜드버거와 영국은행 바클레이즈의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 보고서 2014'의 한국어 번역판을 25일 발간했다.

북미, 유럽,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각 지역의 물류 현황과 주요 트렌드를 담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시장의 중심은 미주·유럽에서 아시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문 기업을 통한 물류 시장인 '3PL'의 아시아시장 성장률은 5.8%로 북미(1.5%), 유럽(0.5%)을 크게 앞섰고 2017년까지 연평균 8.9%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성장세는 지역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시장의 고성장에 기인한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2017년까지 각각 14.1%, 12.3%의 고성장률을 이어가며 아시아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의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우리나라 제조·유통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데다 지리적 이점, 한류 붐 등 우호적인 환경으로 아시아 지역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내 물류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축구 황제' 펠레를 우리팀 공격수로

'피파온라인3' 역대 최강 선수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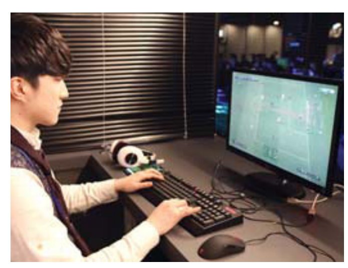
펠레·베르캄프….올 겨울 '피파 온라인3'가 더욱 막강한 선수들과 함께 찾아온다.

넥슨은 25일 e스포츠 경기장 넥슨 아레나에서 '피파 온라인3 2014-2015 윈터시즌' 쇼케이스를 열고 대규모 콘텐츠와 새로운 e스포츠 리그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콘텐츠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세가지 키워드 '글래머러스' '다이내믹' '레전드'로 구성된 피파 온라인3 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콘텐츠는 세계 축구 최고 선수들로 구성된 '월드 레전드'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1차로 업데이트될 11명의 선수 명단과 게임 플레이 모습이 공개됐다. 전설의 선수로는 영원한 축구 황제 펠레(브라질)를 비롯해 토탈사커 베르캄프(네덜란드), 천재 공격수 셰브첸코(우크라이나), 월드컵 최다출전 마테우스(독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서 프로게이머 김민재와 박준효가 신규 콘텐츠가 적용된 피파 온라인3를 시연했다. 두 선수는 팽팽한 접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다. 김민재 선수는 "펠레 덕분에 두 골을 넣었다. 펠레 신장이 작아 걱정했지만 몸싸움과 골 결정력이 모두 뛰어나게 구현됐다"고 말했다. 박준효 선수는 "베르캄프를 추천하고 싶다. 공격형 선수의 명성을 게임에서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피파 온라인3'의 긴장감을 높이는 승강제가 도입된다. 이용자는 시즌 시작 직전 진행되는 '등급배치전'을 통해 등급과 세부그룹을 부여받는다. 이후 시즌 진행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 최상위 혹은 최하위권에 도달 시 3판2선승제의 '승급전'과 '강등전'이 열린다.



피파 온라인3를 시연하는 박준효 선수.

이용자들의 팀플레이를 강화하는 '클럽 시스템'도 강화된다. 게임 내 추가된 '클럽시설'은 이용자들끼리 팀을 꾸려 전략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이어가게 한다.

피파 온라인3를 총괄하는 이정헌 넥슨 사업본부장은 "대대적인 콘텐츠 개편과 새롭게 바뀐 e스포츠리그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파 온라인3 겨울을 뜨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메르세데스 벤츠, 2세대 CLS 상륙

최첨단 안전·주행 보조시스템 탑재… 한국형 내비 장착



메르세데스 벤츠 뉴 CLS.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뉴 CLS클래스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뉴 CLS클래스는 프리미엄 4도어 쿠페 CLS클래스의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25일 청담동 특별 전시장인 '갤러리 CLS' 무대에 나온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CLS클래스의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맞아 갤러리 CLS라는 공간을 마련,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거울을 활용한 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한층 새로워진 뉴 CLS클래스를 선보였다.

2011년 국내에 출시한 2세대 모델 이후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되어 선보이는 뉴 CLS클래스는 디자인을 살짝 바꿨다. 앞모습은 디자인 요소인 다이아몬드 그릴과 싱글루브르 그릴이 적용됐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멀티빔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됐다. 이 시스템은 24개의 고성능 LED가 최적화된 도로 표면을 보여주는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와 최대 여섯 가지의 세팅으로 최적의 가시거리 확보에 도움을 주는 풀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기술이 결합됐다. 밝기는 255단계로 조절된다. 또 굽은 도로와 원형 교차로를 미리 인식해 조사각을 조절하고 코너링 라이트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뉴 CLS클래스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첨단 안전과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됐다.

최첨단 안전장치인 충돌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은 전방 차량과의 간격이 너무 짧거나 장애물이 탐지되었을 때 계기반에 불빛이 들어와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경고를 해 주는 기능이다. 시속 7~250km 속도로 달리는 차를 감지하며 시속 7~70km 속도일 때 서 있는 장애물을 인식한다. 만약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든다.

또한 평행 자동 주차 기능은 물론 직각(T자) 주차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가 기본 적용됐다, 자동 주차 기능을 통해 평행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탈출하는 기능 또한 자동으로 작동된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는 콘셉트로 적용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탑재됐다. 이는 조향 어시스트와 스톱&고 파일럿이 포함된 디스트로닉 플러스, 교차로 어시스트가 포함된 BAS 플러스, 보행자 인식 기능이 포함된 프리-세이프 브레이크, 프리-세이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프리-세이프 플러스 등의 혁신적인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는 AMG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되며 CLS 250 4MATIC과 CLS 400에는 선택사양으로 장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사고를 방지하는 주의 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 어댑티브 브레이크 라이트, 앞 유리 뒤편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 하선이탈을 감지할 경우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능인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등을 탑재했다.

뉴 CLS클래스에는 탑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사양과 엔터테인먼트 장치가 대거 장착됐다.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신형 COMAND를 탑재해 한국형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전화·오디오·비디오 그리고 인터넷까지 고해상도 모니터를 통해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독일 본사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통합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 도착이 가능해졌다.

뉴 CLS클래스는 4개 모델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가격은 뉴 CLS 250 BlueTEC 4MATIC 8500만원, 뉴 CLS 400 9990만원, 뉴 CLS 63 AMG 4MATIC 1억5490만원, CLS 63 AMG S 4MATIC 1억699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오디오테크니카 모니터링 헤드폰 출시 음향기기 브랜드 오디오테크니카(audio-technica)의 공식수입원인 세기AT는 25일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재생하는 아웃도어 모니터링 헤드폰 'ATH-MSR7'과 정밀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캐주얼 이어폰 'ATH-CKB' 라인 제품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당산역 롯데캐슬, 출근 길 인사 분양 홍보

롯데건설이 쌀쌀한 날씨 속 거리로 나와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당산역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견본주택을 개관을 앞두고 고객 출근길 배웅 및 가두행진에 나섰다.

우선 지난 19~24일에는 사업지 인근인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여의도역을 찾아 출근길을 배웅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구호에 맞춰 지하철역을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분양정보가 적힌 홍보물을 전달했다.

22~23일 주말 양일에는 아파트에서 목동으로 이어지는 주요대로를 돌면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30여 명이 눈에 띄는 형광색 점퍼를 입고 함께 걷는 모습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길거리 마케팅을 기획했다"며 "전화상담이라는 절차 없이 출근길 또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길거리 마케팅은 지역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문·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간접 홍보와는 달리, 분양 타깃을 명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면 방식이라 직접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와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편, 당산역 롯데캐슬 프레스티지는 지하 2층, 지상 22~26층, 2개동, 전용면적 84㎡, 전체 198가구 규모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106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통3사 '울고' 알뜰폰 '웃고'

10월 가입자 수 희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5249만50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11만2647명 줄어든 것이다.

이통 3사의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 3사가 45일간 순차적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0월 가입자 2637만 3945명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6만793명 감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28만9914명, 1083만1177명으로 전월 대비 4만2908명, 8946명 줄었다.

이처럼 이통 3사가 나란히 가입자 감소세를 보인 것은 단통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일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며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자 법 시행 초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은 대거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피해를 받았고, 유통점주들은 인건비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을 대거 거리로 내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이통 3사의 이 같은 가입자 감소 분위기 속에 알뜰폰 업계는 반사 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알뜰폰은 가입자 수 431만5274명을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17만7181명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보조금 지원 폭의 변화가 적고, 저렴한 요금제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한달 간 이통3사의 가입자 수는 11만2647명 줄어든 반면, 알뜰폰은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17만7181명 증가하며 최대 수혜자가 됐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24시간 연중무휴 '나이트 서점' 성업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대만 '올빼미족 놀이터' 서점가 불황 속 인기… 한밤중 독서 열기 후끈

자정 무렵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불이 꺼지지 않은 서점이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서점 '에스라이트'다. 대다수 서점이 불황으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홀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책방.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가 에스라이트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다.

에스라이트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24시간 운영 정책이다. 도심 한복판에 '나이트 서점'이 등장하자 시내 곳곳에서 올빼미 족이 몰려왔다. 많은 타이베이 시민은 한밤 중 이 곳을 찾는다. 서양에서 밝은 대낮 서점을 찾는 방문객 수만큼 많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밤을 잊은 '책벌레'는 계단에 걸터앉아 책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사색에 빠진다.

이 서점을 종종 찾는다는 한 교사는 "타이베이는 화려한 밤의 도시다. 나이트 클럽의 네온사인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 북클럽 마니아도 적지 않다"며 "한밤 중 독서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른다"고 말했다.

에스라이트 그룹은 1989년 타이베이에 첫 번째 서점을 열었다. 현재 대만에 42개, 홍콩에 1개 분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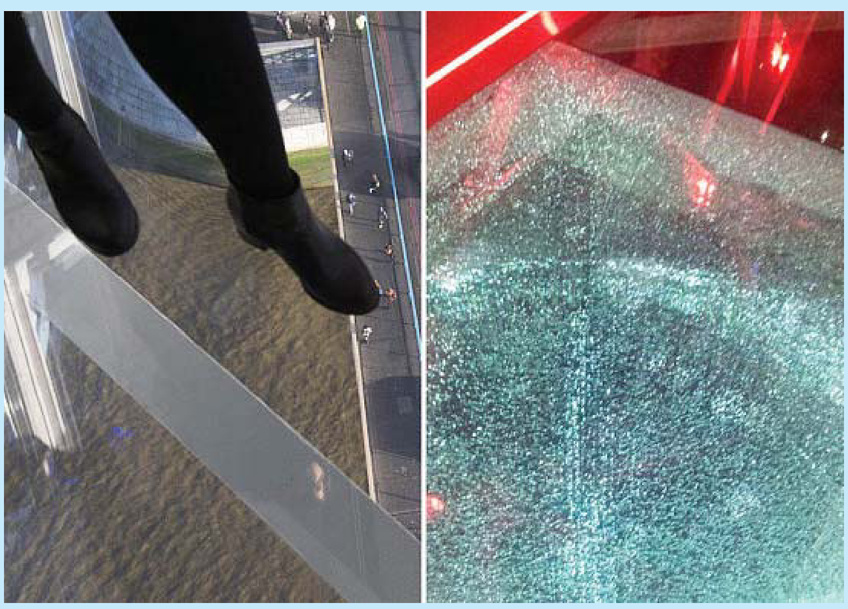
최근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상당수 오프라인 서점은 문을 닫았다. 영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개인 서점 3곳 중 1곳이 폐업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서점 반스앤드노블도 경영난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 경쟁 등에 밀려서다.

에스라이트는 온라인 서점에는 없는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웠다. 세련된 실내 디자인과 따뜻한 분위기, 향긋한 차와 재미있는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에 시민은 열광했다.

지난해 에스라이트 그룹은 4억2500만 달러(약 47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가 책 판매 수입이라고 그룹 대변인인 티모시 왕은 밝혔다. 그는 올해 매출은 8%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왕은 "딱딱한 분위기의 책방이 아니라 편안한 카페 같은 느낌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서점을 찾는다"며 "독서삼매경과 수다삼매경이 공존한다"고 서점의 분위기를 전했다.

타이베이 시민에게 에스라이트는 부담 없는 놀이터다. 공짜 독서와 공연을 즐기고 빈 손으로 나가는 고객이 많지만 서점 측은 개의치 않는다.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인 분위기가 결국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17억원 英 템스강 다리 유리통로 깨져

영국 런던 템스강의 명물인 타워 브리지에 설치된 100만 파운드(약 17억4600만원)짜리 투명유리 통로의 최상판이 개통 2주도 안돼 깨졌다. 최근 이벤트 도중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맥주병을 떨어뜨려 통로에 깔린 유리 한 겹에 금이갔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자 유리가 깨져버렸다. 깨진 유리판은 곧바로 교체됐다. 관광객을 끌기 위해 제작된 투명유리 통로는 42m 아래 템스 강물이 내려다보여 아찔한 느낌을 준다. 사진은 유리 통로의 깨지기 전후 모습. /텔레그래프

'DM페일' 아시나요

트위터 CFO도 트윗 배송 실수

트위터 고위 임원이 회사 기밀을 트위터에 잘못 공개하는 'DM페일'을 저질러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 사용법이 지나치게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노토 트위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anthonynoto)을 통해 "나는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12월 15일이나 16일에 당신 스케줄에 들어 있다. 우리는 그를 밀어줘야 할 것이다. 내게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 쪽지(DM)로 보냈다. 그런데 실수로 이 내용을 전체 공개로 트윗해 버렸다. 이 사실을 발견한 노토 CFO가 서둘러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트위터가 타사 인수 협상에 나선다는 비밀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뒤였다.

이번 사건은 트위터 고위 임원조차 이런 실수를 할 정도로 트위터 서비스 사용법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즈니스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노토가 DM 페일을 저지른 첫번째 사람은 아니며 아마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골드만삭스 그룹 출신의 재무 전문가인 노토는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CFO를 거쳐 7월에 트위터 CFO로 취임했다.

/이국명기자

서민층 웃음 찾은 미국, 성장률 하락에 우는 중국

양강 경제 희비 엇갈려

세계 양강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서민층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부유층보다 크다고 밝혔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2.50달러 미만인 계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8% 상승해 45달러 이상인 계층의 2.5% 상승 폭을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골드만 삭스는 "하위층의 이같은 임금 상승폭은 1995~2000년의 성장 붐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괄목할만한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지만 지난 1~2년 사이 이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소재 민간경제 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의 경제 심리 조사에서도 한해 소득이 1만5000~2만5000 달러(약 1664만~2774만원)인 미국인의 경기 신뢰감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8%를 넘는 수치를 자랑하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25일 중국증권보는 런민대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2%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7.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류위안춘 런민대 집행원장은 "외부 수요가 약해지고 내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산업 증가율이 올해 7.5%에서 7.0%로 떨어지고 1차산업과 3차산업도 부동산 하락 등으로 경기 하강 압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새로 나온 책

달의 연인
미치오 슈스케/문학동네



기무라 타쿠야·시노하라 료코 주연의 드라마 '달의 연인'의 원작 소설이다. 젊은 남녀의 치열한 일과 가슴 설레는 사랑을 도쿄와 상하이를 무대로 그려냈다. 허점투성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야요이와 능력있고 언제나 당당한 젊은 사업가 렌스케, 상하이에서 렌스케가 발탁한 아름다운 중국인 모델 슈메이. 세 사람의 눈부신 러브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

여행, 커피에 빠지다
류동규/상상출판



커피와의 만남을 매개체로 도시여행을 떠난 저자의 이야기다. 각 여행지에서 들러볼 만한 명소와 유명한 먹을거리 등을 세세하게 짚어주며 도시에 대한 일화와 역사를 들려준다. 도시별로 붙어있는 커피하우스 챕터에서는 맛에 대한 평가, 공간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때로는 박이추 선생의 커피에서 장인정신을 배우고, 커피스트의 리필 서비스에선 배려를 생각하게 된다.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김동석/글과 생각



치과의사인 저자가 자신이 읽었던 책·신문·잡지 등의 내용을 병원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었던 것을 엮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간직해야 할 책의 교훈을 함축적으로 담고, 저자의 생각과 고민, 그가 배우고 헤쳐나간 점 등을 풀어냈다. 자기계발과 직장생활, 서비스, 리더의 자질 등 자칫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맛깔나게 전한다.

하루 10분 거꾸로 가계부
김혜원/알투스



'서울 머니쇼' 재테크 공모전 1위를 수상한 저자가 20대에 1억원을 모으고, 30대에 작은 건물을 지은 '거꾸로 가계부'의 비밀을 소개한다. 저자는 '20대 1억원 모으기'와 같이 분명한 목표에 맞춰 저축액부터 정해놓기 때문에 월급이 새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계부에 남은 지출액으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예산과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주말여행 버킷리스트 99
김혜영/시공사



그 지역의 문화와 정취가 오롯이 깃들어 있는 명소들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명소,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명소들을 수록했다. '흐드러진 벚꽃 아래에서 도시락 먹기'와 같은 가벼운 미션부터 아이와 함께 강에서 카약을 타거나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하룻밤 캠핑하기, 한겨울 눈 내리는 밤 산장에서 자 보는 일처럼 평소에 도전하기 힘든 경험들을 두루 안내한다.

/박지원기자 pjw@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메시지

50년 침팬지 연구와 환경운동을 담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이 한국을 찾는다. 이 책은 방한을 기념해 2011년에 출간된 양장본 '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50년'을 보급판으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130여 장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전한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감정을 경험한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낸 그녀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희미한 경계를 세상에 알리면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후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생명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운동가로 거듭났다.



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50년
제인 구달, 제인 구달 연구소/궁리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 50주년을 기리는 이 책에는 침팬지 무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돼 획기적인 발견을 해낸 순간에서부터 연구소를 세우고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그녀가 걸어온 발자취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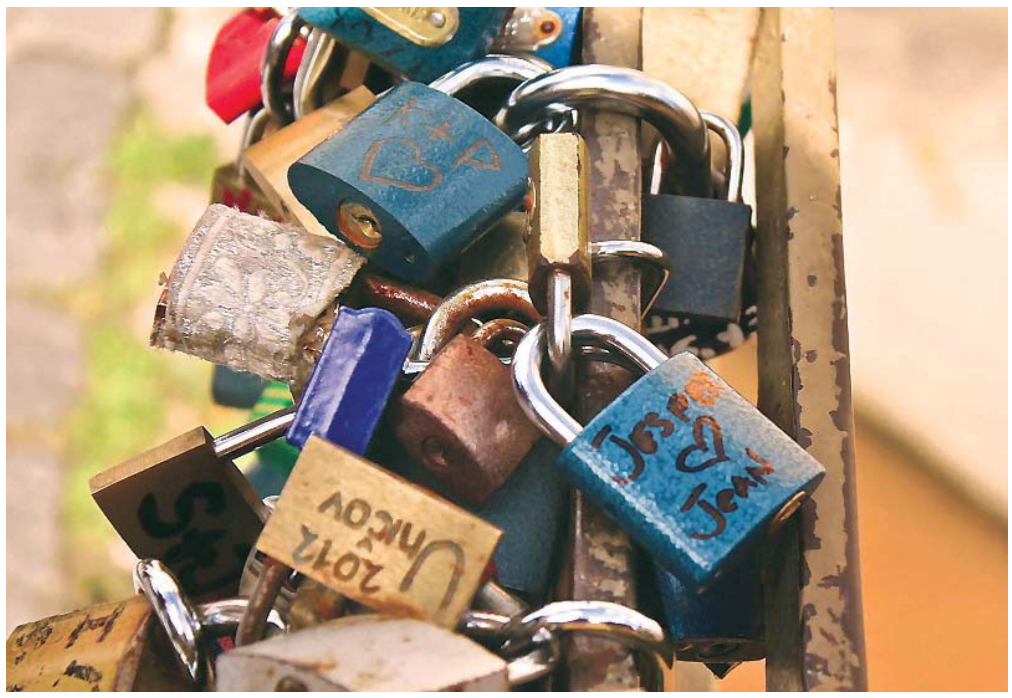
제인 구달의 연구와 활동 모습은 지구상의 생명이 연결돼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또렷하게 전해준다.

이런 그녀의 메시지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을 움직였고 국제 청소년 환경단체인 제인 구달의 뿌리와 새싹이 13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장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준다. 제인 구달이 걸어간 희망의 길을 이 책은 선명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끝나지 않는 희망의 여정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갈 차례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겨울, 무심한 듯 따뜻한 사람들. 그렇게 스웨덴은 다가왔다. 그리고 여행보다는 일상으로 찾아온 스웨덴에서의 길고 긴 여정은 나를 그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이곳에서도 사람의 달콤함에 빠지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웨덴 라이프'(고지연/북로그컴퍼니) 중–

/황재용기자

개정 도서정가제…매출 영향 없어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서점 타격 예상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서점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교보문고·예스24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형서점 5곳과 광주 솔거서림 등 지역 중·소형 서점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 온라인 교보문고가 10%, 인터파크가 50% 가량 매출이 줄었다. 하지만 예스24는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는 매출 감소나 고객 감소가 없었다.

또 지역 중소 서점은 매출 변화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서점에서는 매장을 찾는 독자들이 도서정가제 시행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서점의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오프라인 서점도 재정가 도서가 증가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한국을 이끄는 女의학자들

화제의 책

명의로 꼽히는 46명의 인생 이야기

여의열전 박효순/경향신문사

여의사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 대학병원의 여교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외과나 신경외과, 심지어 비뇨기과까지 진출하는 여의사들도 상당하다. 그동안 남성이 주도하던 영역에 여자의 깃발이 오른 셈이다.

이에 저자는 교육·연구·진료의 3박자를 갖춘 여의학자 명의들을 찾아 이들이 살아온 인생을 소개하고 있다. 1년이 넘게 전국을 발로 누비며 인터뷰를 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이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졌던 얘기와 남성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들의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또 50여 개의 대학병원 원장과 학장들의 인물평도 재미를 더한다. 게다가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의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이나 후배 의료진에게 의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책은 최신 건강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46개 질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진료를 받거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이다.

아름다운 손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충분한 역량과 응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여자들을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hsoul38@



호텔에서 쉬고 힐링을~

신라스테이 역삼, 다양한 패키지 선봬

신라스테이 역삼이 호텔에서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먼저 'Gourmet Dining' 패키지는 신라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의 모닝·디너 뷔페와 함께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패키지다.

모닝 뷔페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워낸 크루아상 등이 제공되며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오믈렛을 비롯한 계란요리와 쌀국수를 맛볼 수 있다. 또 저녁에는 인기 메뉴인 대게와 신선한 초밥, 제철과일과 한식 메뉴 등이 준비된다. 특히 코바(Cova) 커피는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로 이탈리아 밀라노 코바에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고 커피 장인이 수작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했다.



아울러 호텔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인을 위한 'So Sweet Christmas' 패키지도 마련했다. 크리스마스 특선 디너 뷔페와 함께 스파클링 와인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 테디베어와 아베다 핸드크림이 포함된 스페셜 크리스마스 햄퍼도 증정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옥타곤에서 신나게 놀며 뜨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솔로를 위한 패키지도 이용 가능하다. 문의: www.shillastay.com·02)2230-30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실속·품격을 동시에…호텔서 웨딩!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 프로모션 눈길

특급호텔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롯데호텔월드(잠실)는 다음 달 31일까지 '2014 리메이닝 타임 데이 웨딩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보증 인원 200명 이상이면 최대 20% 할인되며 연출 케익과 폐백실, 리무진 픽업 서비스 등도 무료다.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는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고품격 메뉴를 4만9000원에 만날 수 있다. 메뉴는 최상의 훈제 연어와 혼합식 샐러드·꽃등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웨딩 후 지인을 소개하거나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상암동 DMC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은 내년 1월과 2월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를 위해 '브라이트 브라이드(Bright Bride) 윈터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하객 인원 250명 이상이면 특별 웨딩 메뉴가 제공되고 음료와 주류가 30% 할인된다.

서울팔래스호텔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2015 윈터 웨딩 프로모션'이 이어진다. 웨딩 메뉴가 10%, 꽃 장식이 20% 할인되며 보증 인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병의 와인이 무료로 제공된다. 감사 선물로 LA갈비세트가 전달되며 웨딩 계약을 확정하면 암살라(Amsale) VIP카드와 프로모션 상품도 증정된다.



The-K호텔서울에서는 '2015 새해 웨딩 프로모션'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고급 양식 메뉴 또는 뷔페 메뉴와 플라워 데코레이션 서비스가 10% 할인되고 웨딩 당일 스위트 객실과 와인, 다음 날 조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엠블호텔 킨텍스는 예비 부부를 위한 다양한 가격 혜택을 마련했다. 웨딩 메뉴가 10% 할인되며 무대 연출비는 40%, 맞춤형 데코레이션은 2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수와 테이블당 음료 2병, 폐백실 등도 무료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는 하객 300명 이상 예약 시 예식 전날 혹은 당일에 프리미어 이그제큐티브 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에쿠스 리무진 서비스를 통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할 경우 식사를 15%까지 할인해주는 특별 서비스도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호텔 등급 '무궁화'에서 '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바꾸기로

국내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무궁화에서 외국과 같은 체계인 별의 개수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호텔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5개로 구분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호텔업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등 별의 개수로 표현된다.

정부 관계자는 "호텔업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정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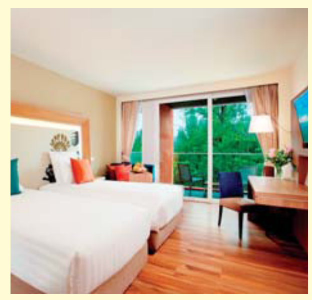
아코르 호텔 '슈퍼세일' 선언

국내 15개 등 전세계 2200곳서 최대 40% 할인

전 세계 아코르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코르 호텔 슈퍼세일'이 시작됐다.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는 국내 주요 5개 도시의 15개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을 포함해 전 세계 2200개 이상의 아코르 호텔을 최대 40%(비회원 30%) 할인하는 슈퍼세일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숙박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며 슈퍼세일 기간 동안 예약하면 2만2300원부터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또 무료 조식도 함께 제공된다.



글로벌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무료 룸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회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약은 호텔 홈페이지(www.accorhotels.com·www.ambatel.com)나 아코르 콜센터(00798-8521-2018)를 통해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추운 겨울 난 바다에서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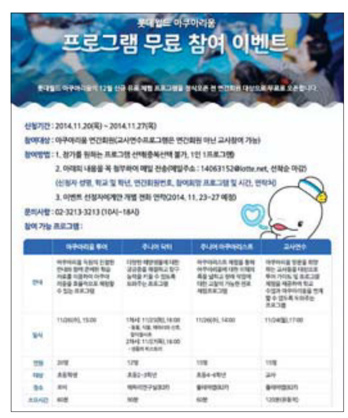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겨울방학 이벤트 실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겨울방학 신규 프로그램 무료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 달 프로그램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벤트는 아쿠아리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7일까지 연간회원 번호와 참여 희망 프로그램 등을 작성해 메일(14063152@lotte.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은 현재 수험생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수능 탈출, 시원하게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보자!'와 '아쿠아리움도 가고~ 어드벤처도 가고!'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1661-2000



/황재용기자



'수지 향수'가 반값으로

더페이스샵, 베스트셀러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6일부터 12일 간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더페이스샵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 촉촉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베스트셀러 '빛나는 미감수' 클렌징 제품을 비롯한 클렌징 전 품목과 사랑스러운 첫사랑의 향기를 담은 '수지 향수' 등 향수 전 품목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또 할인 기간 중 겨울철 필수 제품 '망고씨드 뽀얀 윤기 데이트 버터'와 '씨앗 속의 씨앗 씨눈 에센스'를 30% 할인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정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지난 9월 출시 이후 10만 개 이상 판매된 '망고씨드 뽀얀 윤기 데이트 버터'는 미백·주름개선의 이중 기능성 페이셜 버터다. 비타민·필수 아미노산·식물성 스쿠알렌 등이 풍부한 100% 식물성 망고 씨앗 버터가 피부 깊숙이 탁월한 수분감을 부여하고, 각종 미네랄·체리 씨앗 추출물이 피부 속부터 건강해 보이는 뽀얀 윤기를 만들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엄마 닮은 유아용품 인기

모유 수유 환경 최적화 제품 등 눈길

최근 발표된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와의 끈끈한 상호작용이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시기로 엄마와의 교감 정도에 따라 두뇌와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아용품 업계도 이에 주목해 엄마 품을 재현하는 등 제품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유 수유할 때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젖병이 출시돼 인기다. 유미 젖병은 특화된 젖꼭지와 웜커버(Warm-Cover)를 장착해 모유 수유 환경에 최적화됐다. 입천장까지 충분히 닿는 3㎝ 길이의 젖꼭지는 넓고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 모유수유할 때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 뉴나의 바운서 리프의 경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은 27° 각도로 설계됐다.

엄마 품을 그대로 구현한 유아용품도 선보이고 있다. 베이비무브의 코지 슬립매트는 아기의 허리와 엉덩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쿠션으로 포근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블랙프라이데이' 맞불 판촉전

패션업계, 할인 행사 봇

오는 28일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패션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선물 증정 이벤트로 해외 직접 구매자들 잡기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전개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 디젤(DIESEL)은 28일 단 하루 전국 19개 매장에서 청바지와 일반 의류를 30~40% 할인 판매한다.

일 년에 단 두 번 시즌오프 세일만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브랜드로써 이번 이벤트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소 할인에서 제외됐던 조고진 등 디젤의 인기 데님진 일부 품목이 포함됐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 깜짝 선물도 준다. 선착순 고객에 한해 파퍼스케틀콘의 팝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데님 캐주얼 브랜드 이스트쿤스트는 12월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한다.

아이템별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100명에게 모든 제품을 최대 38% 할인가에 판매한다. 실제 결제 금액의 50%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이 적립금은 결제 완료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할인 품목에 올해 가을·겨울 신상품인 N3B파카와 패딩맥코트, 스테디셀러인 패딩 베스트까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리본즈는 이달 말까지 '블랙 앤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 지방시·프라다·생로랑·발렌시아가·끌로에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셀린느 트리오 백은 58만원대, 클러치는 49만원대, 펜디의 바이더웨이 백은 109만원대로 선보인다.

가방팝은 다음 달 8일까지 최대 80%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선물 이벤트를 벌인다.

이 기간 블랙프라이데이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 상품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10명) ▲락 힙합 공연티켓(15명) ▲크린토피아 5만원 세탁쿠폰(50명)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는 라지크·데이라이프·루드마크·지플랫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참여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AIA생명과 여성암 환우 지원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대표 다니엘 코스텔로)과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여성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AIA생명은 의료원에 2억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의료원은 이 지원금을 통해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우에게 입원비와 외래 치료비 등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강강술래, 천일염 증정 '알뜰 김장 축제'

김장증후군 극복 건강충전 이벤트도 진행
와인 1+1행사, 떡갈비·돈가스 2+1 덤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김장시즌을 맞아 12월 3일까지 '알뜰김장 대축제'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매장(청담·홍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 3kg을 무료 증정한다. 행사기간 동안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도 천일염(3kg)을 준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영양간식 칠칠한우떡갈비(1.08kg·3만8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를 벌인다.

또 전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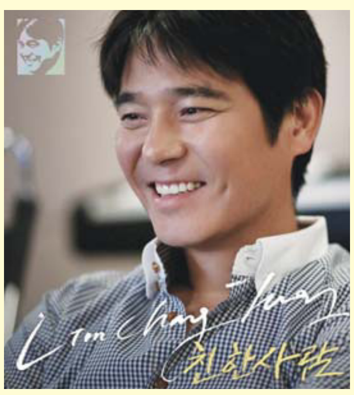
27일까지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김장에 얽힌 추억을 올리면 김장으로 지친 체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김장증후군 극복 건강충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인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전략서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가게의 비밀'과 자신감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위험한 자신감'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prms@

웃음 전도사로 변신한 가수 임창정



발라드 아닌 댄스곡 '임박사와 함께 춤을' 발표



가수 임창정(41)이 '웃음전도사'로 변신했다. 24일 새 앨범 '친한 사람'을 발표한 그는 발라드가 아닌 댄스곡 '임박사와 함께 춤을'을 타이틀로 정했다. 1998년에 발표했던 '늑대와 함께 춤을'의 2014년판이라 볼 수 있는 노래로 '뽕짝 멜로디'의 1인자인 이박사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그는 '소주 한 잔' '이미 나에게로' '슬픈 혼잣말' 등 무수한 발라드 곡을 히트시켰다. 댄스곡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그는 "웃음이 가진 힘을 믿는다"며 "요즘 웃을 일도 없고 대한민국에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처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함께 신나게 웃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노래를 썼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최송이

"웃을 일 없는 요즘, 함께 웃기위해 댄스곡으로 결정했죠"
뮤직비디오 카메오만 60여명… 스타들의 '진짜' 웃음 담아
"웃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알려주고 싶어"

◆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임박사와 함께 춤을' 뮤직비디오에는 무려 60여 명의 스타들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하지만 이들은 임창정과 함께 춤을 추거나 하지 않는다. 대신 활짝 웃는 스타들의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이 뮤직비디오에 담겨있다. 휴대전화 전면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카 모드'로 찍은 영상이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데에는 임창정의 의도가 숨어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제 지인입니다. 일일이 연락해 '당신의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했죠.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휴대전화로 찍으니 화질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카메라로 찍으면 연출된 화면이 잖아요? 휴대전화는 달라요. 매우 사적인 기기죠. 스타들이 자기 휴대전화를 셀카 모드로 바라볼 때의 그런 웃음이 필요했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할지 난감해요. 30명은 대충 입으로 때우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죠(웃음)."

스스로를 '웃음전도사'라고 표현한 그는 인터뷰 내내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힘들어도 웃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은 일은 반드시 생겨요. 웃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영화도 찍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롭지 않게 공연도 하게 됐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좋은 일만 이어지고 있어요."

◆ 영원한 만능 엔터테이너

모두가 신나게 웃길 바라는 마음에서 댄스곡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과거의 댄스 히트곡 '늑대와 함께 춤을'이 세상에 나온 지도 무려 16년이나 흘렀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인 '원조 만능엔터테이너' 임창정에게도 세월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터.

"이 나이 먹고 댄스곡 한다니까 '늙어서 주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노래로 신나게 연말을 웃으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 용기를 냈어요. 포인트 안무도 있어요. 만화 캐릭터 짱구 춤처럼 '호잇호잇'하며 손을 양쪽으로 번갈아 뻗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처럼 중독성 강한 안무를 노렸어요(웃음)."

올 하반기 가요계는 '컴백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쟁쟁한 뮤지션들이 신곡을 대거 발표했다. 경쟁자들이 많아서 부담되겠다는 질문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정말 즐기려 나온 거라서 전혀 부담 없어요. 순위도 신경 안 써요. 다만 오랜만에 댄스곡을 들고 나왔으니 굳이 경쟁자를 꼽자면 '지드래곤&태양', 그 친구들이 좀 거슬려요(웃음). 팬들은 '이번에 누구랑 누가 신곡 냈다. 임창정 음원 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미 실컷 1등 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다. 물론 성적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 욕심이다. 그냥 즐기자.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줄 테이니 1등 안 됐다고 서운해 마라.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줬어요."

◆ 광대 그리고 아버지

임창정은 스스로의 말대로 가수로서 배우로서 또 재치 넘치는 입담꾼으로서 연예계를 주름잡았다. 1990년대 말에는 배우들이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최근에는 아이돌이 연기자로 변신하는 사례가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원조 만능엔터테이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광대로 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끼가 있으면 다 해야죠. 가수라고 연기 못 하고 연기자라고 노래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잘 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끼를 발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선배 연예인으로서 후배들을 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가 부모의 입장에 섰을 때도 같은 생각을 유지할까.

"제 아이들도 연예인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얌전한데 둘째와 막내는 끼가 있어요. 둘째는 어딜 가도 사랑받는 성격이고 막내는 잘 생겨서 연예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인은 재능만 있다면 참 좋은 직업이죠. 사랑도 받고 돈도 벌잖아요(웃음). 물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 해요. 회사 들어간다고 다 사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한다고 모두가 김연아 선수처럼 될 수도 없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회사원이었다면 전무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웃음)."

"U2 보노에게 '그날에' 함께 부르자고 제안"

이승철,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와 함께 부른 평화통일곡
최근 일본입국거부사건 계기 '독도 지킴이송'으로 유명세
"세계적인 가수와 우리나라 스타들도 동참하길 바라죠"



가수 이승철이 세계적인 밴드 U2 멤버 보노에게 평화통일곡 '그날에'를 함께 부를 것을 제안했다.

이승철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와 함께 부른 평화통일송 '그날에'를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같이 부르자고 제안했다"며 "U2의 보노를 비롯한 해외 유명 가수 7, 8명 정도에게 편지를 보냈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다. 내년 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날에'는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곡이지만 지난 9일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건으로 독도 지킴이 송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이승철은 일본 측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내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날에' 음원을 무상으로 배포했다.

이후 이승철에게는 '독도지킴이' '독도 열사' 등의 별명이 붙었다. 그는 "내게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독도 열사가 돼 시위 등을 펼치지는 않지만 음악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위드유가 통일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독도에 가서 같이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다. 독도는 가수인 내가 갈 곳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래서 노래는 써줄테니 발표는 합창단만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다. 6개월 정도 노래를 준비하며 합창단 친구들과 정이 들어 8월에 함께 독도에 가게 됐고 미국도 방문하게 됐다"며 "내게 터닝포인트가 됐다. 가수로서 노래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UN 본부와 하버드에서 공연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날에'는 독도 노래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지만 화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도 어울린다. 그래서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보노에게 '그날에'의 영어 버전 '더 데이'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스타인 김연아 선수나 박찬호 선수, 가수 싸이 등도 함께 해 '그날에'를 한국판 '위 아 더 월드'로 만들고 싶다"며 "세계가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위드유와 인연을 맺은 이승철은 8월 14일 독도를 방문해 '그날에'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이승철의 '원 네이션 캠페인'(이하 'ON 캠페인') 중 하나다. 이승철은 가수로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해 여러 곳에서 위드유와 함께 노래했다. 지난 8월27일에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65회 UN DPI-NGO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그날에'와 '아리랑'을 열창했다. 8월 29일에는 위드유와 함께 하버드대학교에서 자선공연을 펼쳤다.

이승철은 다음달 3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도 홍콩 어린이 합창단과 '그날에'를 부를 계획이다. KBS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년 1월8, 9일 2회에 걸쳐 이승철의 'ON 캠페인'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바 박정현, 일일 강사 변신



숙대 영문과 학생 100명 대상 영어 강의
영문학 전공 선배로 진솔한 이야기 전해

가수 박정현(사진)이 대학 강단에 섰다.

박정현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한상은 라운지에서 '나는 영문학 전공이다-가수 박정현에게 영문학이란'을 주제로 일일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영문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됐다.

박정현은 재미교포 2세로 자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와 가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또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영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영문학을 전공했던 선배로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박정현은 2001년 가수로 활동하던 도중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에 편입해 2010년에 졸업했다. 당시 그는 음악과 관련된 전공이 아닌 인문학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날 강연은 다음달 3~5일 방송되는 KBS 특집 인문학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생각, 후마니타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팝스타 신디 로퍼 26년 만의 내한

데뷔 30주년 기념 투어 공연 내년 1월 23·24일



80년대를 풍미한 팝스타 신디 로퍼(사진)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신디 로퍼의 내한 공연은 내년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1989년 첫 공연이후 26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신디 로퍼는 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 팝 문화를 이끌었던 가수다. 국내에서는 영화 '써니'의 삽입곡 '걸스 저스트 원트 투 해브 펀' '타임 애프터 타임', 가수 왁스가 '오빠'로 리메이크한 '쉬밥'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데뷔 당시 신디 로퍼는 섹시한 외모나 춤보다 뛰어난 음악성과 시대적 정서의 반영, 개성있는 표현으로 평론가와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까지 11개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3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달 2일 한국 초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킹키 부츠'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데뷔 앨범 '쉬즈 소 언유즈얼'의 발매 30주년을 기념하는 투어공연의 일환으로 신디 로퍼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준비했다. 앞서 호주·일본·미국 등 56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올려졌다.

한편 신디 로퍼의 내한 공연 티켓은 2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예매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혜택도 제공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Section 1. 칸의 선택
마미 • 맵 투 더 스타 • 리바이어던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투 데이즈 원 나잇 • 화이트 갓
Section 2. 거장의 새로운 이야기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 이별까지 7일 • 무드 인디고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11.27. Thu ~ 12.3. Wed
Section 3. 이야기의 시작, 모티브
갈증 • 꾸뻬씨의 행복여행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Section 4.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파리 폴리 • 질투 • 엘리제궁의 요리사
주최 • 씨네큐브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이채널 스크린 드라마큐브 채널뷰 패션앤 씨네프 흥국생명보험㈜ www.icinecube.com • www.facebook.com/cinecube • www.twitter.com/iCinecube
예술영화관의 대표브랜드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오만과 편견' 버린 진짜 검사

사회 약자 주제·고군분투하는 역할…'멜로 치중' 우려 시각도


최진혁
백진희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의 진정한 시작은 지난 24일 방송된 8회부터였다.

주인공 한열무(백진희) 검사는 어린 나이에 의문사한 동생 한별의 사건을 '편견'없이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수사관 강수(이태환)는 한별이 죽기 전 받은 물고문을 악몽으로 꾸며 한열무·구동치(최진혁)·강수가 삼각로맨스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그동안 한열무는 정황상 구동치를 동생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구동치는 사건의 목격자에 불과했다.

드라마 '오만과 편견'은 동명의 고전 소설과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하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좋은 집안에 시집가려는 여인들이 결혼하는 과정과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인간 유형을 조명한다. 주인공은 반려자로 지목한 사람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낙인 찍은 뒤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소설은 주인공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며 마무리된다.

드라마 속 한열무도 동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권력을 얻기 위해 검사가 됐고 극 초반에는 열정 넘치는 '오만'한 수습 검사에 불과했다. 그는 8회를 기점으로 '편견'에서 벗어났다. 이제 작품은 한열무를 비롯한 검사들이 오만함을 자부심으로 바꿔 나가는 이야기를 담을 시기다.

'오만과 편견'은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8회 시청률도 11.3%(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전회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긴박한 스토리 구성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작품은 매주 혹은 2주에 걸쳐 사건 하나를 해결한다. 성추행을 견디며 정규직을 꿈꾼 여직원, 아동 성폭행, 취업준비생과 고용 비리 등 우리 사회에 흔하게 일어나지만 잊혀지기 쉬운 약자의 고통을 주제로 한다. 사건을 해결하려 고군분투하는 드라마 속 검사의 모습은 '검사 비리'가 만연한 현실과 대조되며 몰입감을 높인다.

신구 출연진의 조화와 호연, 탄탄한 극본이 어우러져 시청률을 견인한다. 다만 한열무·구동치의 로맨스가 시작되면서 "또 연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vN '미생'과 OCN '나쁜 녀석들' 등 케이블 드라마가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성공하면서 멜로에 얽매인 지상파 드라마에 대한 대중의 회의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오만과 편견'의 무게중심이 멜로와 수사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비단이' 김지영 '펀치' 합류

이지아·오연서 이어 김아중과 모녀 케미

아역 배우 김지영이 SBS 새 월화드라마 '펀치'에 합류한다. 김래원·김아중의 딸 박예린 역을 맡아 아역 스타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힐 예정이다.

2012년 8세 나이로 데뷔한 김지영은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송창의·이지아 부부의 딸 정슬기 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닥터 이방인' '유혹'에 출연했다.

특히 올해는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비단이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스타성과 연기력을 두루 갖춘 아역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지영은 차기작 '펀치'에서 엄마 신하경 역의 김아중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이지아·오연서에 이어 다시 한번 다정한 모녀를 연기해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펀치'의 한 관계자는 "박예린은 박정환(김래원)과 신하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김지영이 나이는 어리지만 타고난 감성과 연기력으로 맡은 캐릭터를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배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펀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박정환 검사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기록하는 드라마다. '추적자' '황금의 제국'을 집필한 박경수 작가의 신작이다.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 후속으로 내달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SBS 새 월화극 '펀치' 김지영. /SBS 제공

'대세' 송재림 캄보디아 우물 건립



배우 송재림(사진)이 국제아동후원 단체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자격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한다.

송재림은 5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스레이 스남에서 마을의 전반적인 식수 위생 상태와 함께 우물 건립 사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물을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지역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송재림은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 책팩도 직접 만난다. '플랜코리아' 측은 송재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책팩과 송재림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팬과 함께 마을에 우물을 선물하고자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송재림은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배우 김소은과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이다. 오글거리는 작업 멘트로 김소은을 당황하게 하면서도 자상하고 섬세한 배려로 여성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효진기자

신예 임화영, 백지영 뮤직비디오 출연

'니가 내리는 날' 감성 연기… 드라마·영화·연극서 맹활약

신예 배우 임화영이 가수 백지영의 '니가 내리는 날'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25일 공개된 '니가 내리는 날'은 1990년대에 활동한 발라드 듀오 자화상(나원주·정지찬)의 노래를 백지영이 재해석한 곡이다.

뮤직비디오는 비 내리는 날을 실감나게 표현한 영상과 함께 임화영의 애절한 연기와 백지영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특히 임화영은 대사 하나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전해 풍부한 감성을 표현했다.

임화영은 연극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중전 역을 비롯해 드라마 '신의', 영화 '일대일' '메이드 인 차이나' 등에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임화영은 연극으로 다져진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능력이 있는 배우"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백지영의 '니가 내리는 날' 뮤직비디오. /영상캡처



도심을 무대로 한 액션 게임

film review

긴박·속도감 내세운 오락영화… 설득력 아쉬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빅매치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이 있다. '스트리트 파이터2'가 등장하기 전 오락실을 평정했던 게임이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대표격인 '파이널 파이트'의 룰은 간단하다. 주인공을 조작해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매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들 주인공에게 후퇴는 없다. '빅매치'를 보면서 '파이널 파이트'가 떠오른 것은 영화의 구성이 이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빅매치'의 주인공은 격투기 선수인 최익호(이정재)다. 막무가내의 성격을 타고난 파이터다. 한때 축구선수로 그라운드를 달리기도 했지만 싸움꾼의 기질은 쉽게 버릴 수 없었다. 결국 그라운드에서 링 위로 자리를 옮긴 그는 '좀비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으며 격투기 스타로 이름을 알린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는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준 형이자 코치인 최영호(이성민) 뿐이다.

익호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막을 여는 영화는 곧바로 본편인 '게임'으로 돌입한다. 선택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게임의 설계자는 정체불명의 악당 에이스(신하균)다. 에이스로부터 주인공으로 지목받은 익호는 이제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하며 내달려야 한다. 경찰서, 불법도박장, 월드컵경기장과 서울역 등 도심 곳곳이 게임 스테이지다.

액션 게임의 묘미는 긴박감과 속도감에 있다. '빅매치'가 내세우는 영화적인 재미 또한 바로 긴박감과 속도감이다. 경찰서 유치장을 몰래 빠져나온 익호가 형사들과 전경을 상대로 벌이는 육탄전은 익호의 유쾌한 캐릭터와 만나 재미를 더한다. 스테이지가 거듭될수록 상대의 힘도 숫자도 늘어난다는 것 또한 게임을 쏙 빼닮았다.

그러나 '게임 같은 영화'와 '영화 같은 게임'은 다르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더 큰 강도의 재미를 요구하게 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다. '빅매치'가 쉼 없이 펼쳐 보이는 액션의 향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시종일관 감정을 폭발시키기만 하는 등장인물들도 피로함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빅매치'는 익호에게만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만다. 이 게임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다. 게임을 지휘하는 에이스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킬링타임용으로서의 재미도 한계도 명확한 영화다. 15세 이상 관람가. 11월26일 개봉.

윤지혜 씨제스 품으로

'군도'로 존재감… 최민식·설경구와 한솥밥

배우 윤지혜(사진)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새 소속사로 선택했다.

25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존재감 있는 여배우로 인정 받은 배우 윤지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더 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지혜는 1998년 영화 '여고괴담'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케 세라 세라'와 영화 '청춘'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예의 없는 것들'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연극 '유리가면' '클로저' 등에도 출연해 탄탄한 기본기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 군도의 홍일점 매향 역을 맡아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액션과 모성애 연기를 동시에 선보여 존재감을 나타냈다.

한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는 최민식·설경구·이정재·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이범수·곽도원·송지효·강혜정 등이 소속돼 있다. /장병호기자

박신혜 첫 사극 도전

'상의원' 왕비 역…"아름다운 의상 기쁘게 연기"



배우 박신혜(사진)가 영화 '상의원'(감독 이원석)으로 첫 사극에 도전한다.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을 무대로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린 영화다. 박신혜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왕비 역을 맡았다.

극중에서 왕비는 뛰어난 미모와 기품을 지녔지만 바느질보다 병법서를 즐겨 읽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우연한 기회에 천재 디자이너 이공진(고수)을 알게 돼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인물이다.

박신혜는 '상의원'에 대해 "사극 연기는 첫 도전이었다. 쟁쟁한 선배님들, 좋은 동료 배우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평소 한복 입는 걸 좋아하는데 '상의원' 속 의상은 정말 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옷들이었다. 여배우로서 이런 의상을 입고 연기한다는 사실이 기뻤다"고 덧붙였다.

20대 대표 여배우인 박신혜는 청순한 외모와 맑은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는 물론 '7번방의 선물'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의 영화에도 출연해 강한 존재감을 남겨왔다. '상의원'은 화려한 궁중 의상의 향연과 함께 스크린을 빛낼 배우 박신혜의 아름다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신혜와 함께 한석규·고수·유연석 등이 출연하는 '상의원'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새해 첫날 만나는 마리옹 꼬띠아르

'내일을 위한 시간'… 佛 거장 다르덴 형제 작품

프랑스 여배우 마리옹 꼬띠아르 주연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이 내년 1월 1일 새해 첫 영화로 개봉한다.

'내일을 위한 시간'은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인 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 형제 감독의 신작이다. 복직을 위해 주말 동안 16명의 동료를 만나 보너스를 포기해 달라고 설득하는 여인 산드라의 이야기를 그렸다.

다르덴 형제 감독은 칸영화제에서 '로제타' '더 차일드'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자전거 탄 소년'으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거장이다. 그 동안 비전문 배우를 기용해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는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스타인 마리옹 꼬띠아르를 주인공 산드라 역에 캐스팅해 화제를 모았다. 마리옹 꼬띠아르는 "다르덴 형제가 나를 자신들의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놀라웠다. 어떤 이야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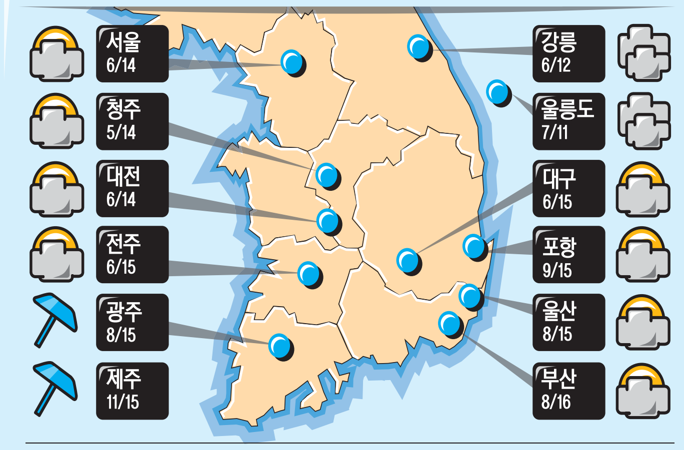
영화는 지난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을 통해 첫 공개됐다. 해외 언론들은 마리옹 꼬띠아르의 열연에 "'라 비앙 로즈' 이후 최고의 연기"라며 극찬을 보냈다. /장병호기자



날씨

11/26 水 일출시각 07:23 일몰시각 17: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가벼운 감기로도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30세 중반 직장녀, 결혼상대 안 생겨요
부정적 사고 접고 생기있는 일 찾도록

Q Hey 캣우먼!
서른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4년간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자신은 없고,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거나 보람 있거나 장래성이 있지도 않아 어서 평범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이나 소개팅도 하지만 누굴 만나도 '필'이 안 옵니다. '현실을 모른다'며 결혼한 친구들은 코웃음을 치지만 최소한 조건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진 않아요. 이대로 늙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호박고구마

A Hey 호박고구마!
'연애도 안돼, 결혼도 못해, 일도 재미없어, 난 더 이상 젊지도 않아' 같은 부정적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인생을 살아야 할 나이에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는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늪처럼 무겁고 매력 없는 여자로 만듭니다. 내가 살아있는 기쁨을,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연애 문제가 안 풀릴 땐 저라면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처럼 말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내가 오래도록 몰두할 일을 찾거나 지금 하는 일을 더 확장시킬 방법은 없나요? 새로운 취미나 운동이나 모임보단 기왕이면 평생 경제적 독립을 지탱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더 치열해졌으면 합니다.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연애나 결혼이 나의 막연한 불안을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도 안 하는 편이 낫고 연애나 결혼을 해서 새로이 떠안아야 하는 불행도 생각해보시길. 만난 남자들이 별로라고 말하지만, 당신 역시도 자기 모습을 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굴 제대로 좋아할 것이며 누가 나를 좋아해준답니까?

'좋아할 만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쩌면 연애나 결혼 따위보다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좋은 삶의 방식을 몸에 단단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척 중요한 갈림길의 나이거든요.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7			8
7		3		9	4		2	
	8							2
		2		7		6		
1							4	
	5		4	6		2		7
6			1					5
					8			

	8		2					
				5			2	7
2	1						8	
		2	7			8	3	
			5		4			
	4	9			2	7		
	3						7	5
8	9			4				
					9		6	

스도쿠 정답

8	4	6	2	3	5	9	7	1
5	2	9	6	1	7	4	3	8
7	1	3	8	9	4	5	2	6
9	8	7	3	4	6	1	5	2
4	3	2	5	7	1	6	8	9
1	6	5	9	8	2	7	4	3
3	5	8	4	6	9	2	1	7
6	7	4	1	2	3	8	9	5
2	9	1	7	5	8	3	6	4

7	8	5	2	1	3	6	4	9
9	6	3	4	5	8	1	2	7
2	1	4	9	6	7	5	8	3
1	5	2	7	9	6	8	3	4
6	7	8	5	3	4	2	9	1
3	4	9	1	8	2	7	5	6
4	3	6	8	2	1	9	7	5
8	9	7	6	4	5	3	1	2
5	2	1	3	7	9	4	6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화물차 기사, 어떤 사업해야 좋을까
대인관계 잘하면 52세쯤 창업가능

hynin남자 73년 12월 14일 정오

Q 메트로신문이 홈페이지를 개선한 이후 기존 회원인 저의 지인들이 '사주속으로'에 상담의뢰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네요. 종전보다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대신 상담을 올립니다. 올해 42세 남자인데 양력 12월 14일 정오가 생일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계속 해왔는데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어려서 할머니가 역마살이 있어 돌아다니는 팔자라고 한 말도 생각납니다. 언제 나름대로 주인행세 하면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며 무슨 직종이라야 돈 좀 벌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명을 하는 것은 오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학문이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책으로도 쓰여져 계속 발전해 온 것으로 제왕학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높은 학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평가할 때 그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타고난 운명을 현명하게 알고 대처하여 후천적인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고난은 줄이고 행복은 증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 하에 활인업(活人業: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정인격(正印格:나를 생해 주는 오행)으로서 선량한 성품으로 이해심이 많고 사려도 깊어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원래는 학문을 즐기는 전형적인 학자 타입인데 생일지(태어난 생일)가 '나무를 타는 잔나비'와 같은 형상으로서 다재다능하고, 일을 꾸미는 가운데 인인성사(因人成事)하니 사람으로 인한 성공을 불러오지만 반면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듯이 인인실패(因人失敗)를 같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쇳조각으로 깍아 내듯이 성공의 비결은 인내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부터 재물운이 서서히 승발하여 52세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운도 도래하므로 현재는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래의 주인 의식과 성공을 위하여 모든 대인관계에서 많이 베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덕을 쌓도록 하세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장래를 위한 저축과 같은 것으로 많은 경험과 성실을 쌓도록 하여 운수업이나 의류제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세요. 재주가 많아 무엇이든지 한 번 보면 따라서 잘 하지만 지속성이 없어 용두사미인 것이 흠이 될 수 있으니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답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쉴 때 확실히 쉬어라. **60년생** 신상에 변화 바람이 분다. **72년생** 운전대 잡는 일은 가능한 피하라. **84년생** 공들인 사람은 마음 움직인다.

소 **49년생** 애물단지가 보배로 바뀐다. **61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은 경계할 것. **73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85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호랑이 **50년생** 외출하면 서운한 일 겪는다. **62년생** 공돈이 생기니 기대하라. **74년생** 계획대로 일이 풀려서 즐겁다. **86년생** 솔로는 소개팅이 들어와 두근두근~.

토끼 **51년생** 불의엔 개입 마라. **63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75년생** 확정 안 된 일은 왈가왈부 마라. **87년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성 만난다.

용 **52년생** 지지한 사람은 뜻을 이룬다. **64년생** 자영업자는 돈가뭄이 해결되어 휴~. **76년생** 수비보단 공격이 이롭다. **88년생** 귀빈 접대할 일 생기니 대비하라.

뱀 **53년생** 하고 싶은 일은 시도해 보라. **65년생** 방심하면 자기 일에 구경꾼이 된다. **77년생**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라. **89년생** 작은 고민이 생긴다.

말 **42년생** 과욕부리면 피곤만 가중된다. **54년생** 항상 내 생각이 옳을 수 없는 법~. **66년생** 선배에 귀중한 한수 배운다. **78년생** 명분보단 실리를 챙겨라.

양 **43년생** 남의 일에 기웃거리지 마라. **55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67년생** 생각도 못한 꺼려지는 일이 생김~. **79년생** 딴죽만 거는 동료가 밉다.

원숭이 **44년생** 감동 먹을 선물 기다린다. **56년생** 꼬리 내린 부하는 용서할 것. **68년생** 설득은 직접 해야 소득이 있다. **80년생** 구애는 상황을 봐 가며 펼쳐라.

닭 **45년생** 입장차 인정하면 편안~. **57년생** 생각 바꾸면 운신의 폭 넓어진다. **69년생** 발등의 불부터 꺼라. **81년생** 어설픈 투자는 손해만 부른다.

개 **46년생** 배우자와의 갈등은 해소된다. **58년생** 못마땅해도 참아야 한다. **70년생** 신상문제로 고민이 생긴다. **82년생**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돼지 **47년생** 등 뒤의 적을 잘 살펴라. **59년생** 금전적 고민은 해결이 된다. **71년생** 애매한 일은 꼭 문서로 남겨라. **83년생** 동남쪽이 행운의 방향이다.

허재·이상민, 스타 감독의 동병상련

연패 수렁 속 꼴찌 싸움… KCC 7연패·삼성은 8연패



프로농구 스타 감독들이 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농구 대통령' 허재(49·사진 오른쪽) 감독이 이끄는 전주 KCC는 7연패의 늪에 빠지며 리그 9위에, '영원한 오빠' 이상민(42·왼쪽) 감독의 서울 삼성은 8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005-2006시즌부터 KCC 지휘봉을 잡은 허 감독은 재임 기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두 차례 했고 준우승도 한 번 하는 등 팀을 정상권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올해 7연패 늪에 빠지면서 5승13패로 9위에 머물고 있다.

2012-2013시즌 삼성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 감독은 지금도 경기 시작 전 선수 소개를 할 때면 웬만한 스타급 선수보다 훨씬 더 큰 환호가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다. 올해 삼성 사령탑에 선임됐다.

특히 시즌 개막 전 팀 전력이 좋지 않다는 평을 받은 삼성과 달리 KCC는 상위권 진입을 노릴 만한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안양 KGC인삼공사로부터 가드 김태술을 영입했고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도 공익 근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 득점왕 타일러 윌커슨과도 재계약해 정상권 팀들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이들 모두가 시즌 초반 부진하며 팀은 하위권으로 가라앉았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선수 하승진과 박경상이 지난주 부상해 당분간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삼성은 1순위 외국인 선수 리오 라이온스와 2순위 국내 신인 김준일을 보강하며 6강까지는 도전할 만하다는 전망이었다. 시즌 초반 삼성은 3연승을 기록 했으나 그게 다였다.

부상 선수의 공백도 컸다. 김준일은 폐렴으로 최근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키스 클랜턴은 발 부상을 입어 약 1개월 가까이 결장을 예고했다.

두 팀 모두 연패사슬을 끊기에는 이번 주 일정이 첩첩산중이다. KCC는 27일 리그 1위 울산 모비스와 경기를 치르고 29일에는 창원 LG를 상대한다. 삼성은 26일 리그 2위 서울 SK와 맞붙고 28일과 30일에는 4위 고양 오리온스와 연달아 경기한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두 스타 감독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보스턴, 산도발·라미레스 동시 영입

현지 언론 "FA위해 3억 달러 준비"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파블로 산도발(28)과 핸리 라미레스(31)를 동시에 영입했다. 계약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25일(한국시간) 미국 CBS 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스턴이 산도발과 라미레스 영입에 성공했다"며 "놀라운 FA 더블 플레이의 완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산도발은 5년 1억 달러(약 1113억5000만원), 라미레스는 5년 9000만 달러(약 1002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ESPN은 "라미레스가 4년 880만 달러에 '5년째' 옵션을 행사하면 2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1억1000 달러, 산도발은 5년 90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이라고 전했다. 세부 계약 내용은 매체 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보스턴이 FA 시장 야수 1, 2순위로 꼽힌 산도발과 라미레스를 모두 손에 넣었다"고는 입을 모았다.

보스턴은 2013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야구 전통 명가다. 하지만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71승 91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그쳤다. 특히 팀 타율 0.244로 아메리칸리그 15개팀 중 13위에 그쳤다. 이에 보스턴은 F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올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산도발과 LA 다저스의 공격형 유격수 라미레스를 영입했다.

보스턴은 이번 FA 시장에서 투수력 보강에도 힘쓰고 있다. 현지 언론은 "보스턴이 FA 빅3 투수 중 한 명인 존 레스터 영입전에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스턴이 이번 겨울 FA 영입을 위해 3억 달러를 준비했다. 아직 1억 달러의 여유가 있다"며 보스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파블로 산도발. /AP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핸리 라미레스. /AP뉴시스

양현종과 KIA, 팽팽한 줄다리기

美 언론 "KIA, 받아들이지 않을 듯"

KIA 타이거즈와 양현종(26·사진)이 미국 프로야구 포스팅 최고 응찰액 수용을 놓고 3일 동안 상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4일 KIA는 광주 구단 사무실에서 양현종과 만났으나 양쪽의 입장만 확인했다. 25일에도 다시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현종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KIA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며 양현종의 해외진출 추진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미국 언론은 미네소타 트윈스를 최고 응찰액 구단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 폭스스포츠 해설위원 크리스 니코스키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텍사스 레인저스가 150만 달러 수준에 양현종 입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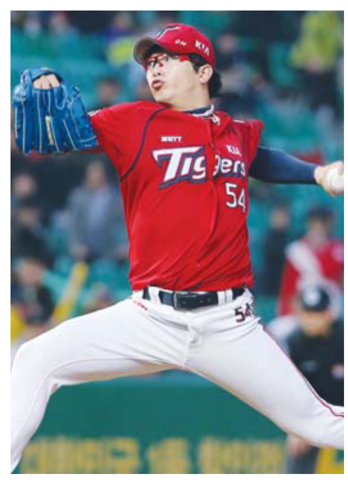
니코스키는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그는 25일 "양현종의 포스팅 금액을 KIA 타이거즈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들었다. 금액보다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구단 측이 예상한 금액보다는 확실히 적어 보인다. 아울러 현지에서 두 팀이 지목된 것은 각각 적어낸 최고 응찰액이 같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고 응찰액 수용 여부를 28일(한국시간)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KIA와 양현종은 늦어도 27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절차상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2일 KBO에 구단을 밝히지 않고 최고응찰액만 전달했다. KIA가 최고응찰액을 수용해야 사무국이 구단을 공개하기로 돼 있다.

한편 양현종은 이번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6승 8패, 평균자책점 4.25를 기록하며 KIA의 좌완 에이스로 활약했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5일

동부	15	20	17	17	**69**
인삼공사	17	22	21	24	**84**

프로배구 전적 25일

삼성화재	3	1	LIG손해보험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